

OPINION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독자권익위원 칼럼

최충명

독자권익위원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원장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가 시작했다. 시작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오보니 아무것도 없다. 연필도, 인주도, 컴퓨터, 프린터도 없다.' '마치 무덤같다'라는 말을 했다. 그렇다. 용산 집무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넘어선 무덤같은 대한민국이었고, 지금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틀림 없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양육되어진(갈려진) 방식'으로 타인을 돌보게 된다. 이것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자신이 의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활동이 국회회관 청소노동자를 찾아가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고생하신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진을 찍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볼 수 없다. 굳이 첫 번째 활동으로 왜 그들을 찾아 갔을까.

심리학자인 필자의 견해로는 '엄마를 찾아가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좋은 순간 이 글을 읽는 독

엄마를 찾아간 대통령

자들은 누가 생각나고 누구를 찾아가고 싶은가? 아마 심중 팔구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동의 농촌빈민 출신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성남으로 온 뒤 도시빈민이었으며, 엄마, 누나 모두 성남시 상대원시장의 화장실청소 노동자였다. 아마 그는 가장 힘들게 본인이 그 자리에 가게 됐고 가장 각오를 다져야 하는 순간에 엄마가 생각이 나고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에게 잘할 수 있다는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의식적인든 무의식적인든 그들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러 가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주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행해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어떤 점을 기대 해야 할까.

앞서 이 글을 시작할 때 인간은 길러진 방식대로 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빈민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사회복지망(그때는 구축되지 않았었다)을 경험해보지 못한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대통령도 공장에서 노동자취를 당하던 소년공이었고, 산업재해로 팔이 뒤틀려 장애가 된 경험이 있으며 주경야독하던 학생이었고, 또한 대학 역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업이 어려웠고, 어렵게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에도 생계각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

위에 언급했던 대통령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할 기본적인 정

책 방향들이 추정될 것이다. 거시적, 통합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불행이 있더라도 국민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소한으로나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싶을 것이다. 또한 온갖 역경을 겪으며 오해를 받거나 의혹으로 몰린 적이 있고 억울한 경험이 있기도 하며 죽다 살아난 경험도 있으니 아마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의료, 행정, 입법, 사법부, 언론의 공정함과 인간미가 있는 국가 기관 및 영향력있는 기관들의 자세를 요청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공공망을 통한 전자문서를 3만여건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기간 14만~16만건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의 량을 추정해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어쩌면 방임상태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비록 보잘 것 없는 한표를 행사했지만 우리의 권리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우리를 적어도 불안해하게 하지 않기를 하염없이 기대한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열심히 일하게 될 행정부에게 '엄마와 같은' 마음을 바래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이재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산업안전부 차장



이렇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지푸라기 집과 나무집은 늑대의 바람 한 번에 무너졌지만, 벽돌로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늑대의 위협을 막아내고 형제들을 지켜냈다.

이 단순한 동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특히 오늘날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밀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산업현장에는 수많은 기계와 인력이 움직이고 있다. 중장비가 운행되고 고소작업이 이뤄지며, 전기설비나 화학물질도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이 공존하는 곳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튼튼한 장비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전의식, 즉, 모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예방적 사고이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집을 빨리 지으려 지푸라기와 나무를 선택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불자 쉽게 무너졌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도 '보기에 괜찮으니까, 안전하겠지', '지금까지 사고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이 큰 사고로 이

동화에서 배우는 산업재해 예방

어질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안전불감증이며, 산업재해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가 너무 느리다며 비웃었지만,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천천히 집을 지었다. 산업재해 예방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보호구를 챙기며 절차를 준수하는 일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결국 생명을 지키는 '벽돌'이 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종종 "시간이 없다", "잠깐이면 끝난다" 등의 말이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하거나, 보호구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잠깐의 방심이 '일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돼지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산업재해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인지해야 한다.

동화 속 늑대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산업현장에서의 '늑대'는 무엇일까?

바로 예기치 않은 '끼임', '떨어짐', '감전', '화재', '폭발' 사고다. 이들은 작업자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덮쳐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늑대'가 주변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는 위험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생기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겉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현장이라도 해도 내부에 미비한 안전조치가 있다면, 지푸라기 집과 다를 바가 없다. 안전은 처음부터 하나씩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이 튼튼하고 안전해야 우리는 퇴근 후 '진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산업재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일이다. 방심과 무관심이라는 '늑대'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이를 막는 건 단단한 '벽돌' 같은 안전조치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안전도 하나씩 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작업 전 안전 점검과 보호구 착용, 위험물 관리, 교육훈련 등은 모두 이 벽돌에 해당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전의 집'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안전조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생존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한 '벽돌집'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취재수첩

풍수해 예방대책 다시 한 번 '꼼꼼히'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전 폭염 기간이 늘고,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홀한 대비책은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산사태나 하천 및 해수 범람, 지하공간 붕괴와 같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광주·전남 지역에 20일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장마가 시작된다. 예보대로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6월 23일)보다 3일 정도 빠르다.

특히 경제전선이 중부지방에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이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지금은 풍수해 피해 예방에 더 집중할 시기다. 지자체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임기응변식의 임시적 대책이 아닌 선진방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

안전 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폭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의 연속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변수가 아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독자투고

파지수집 노인 사고 예방 대책 필요

출퇴근길 새벽시간이나 밤늦은 시간대 리어카나 우모차를 끌고 다니며 파지줍는 노인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차에 치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운전 중 커브길이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불속 리어카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별 생각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일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여건에서 파지를 줍는 노인분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는 물론 파지 줍는 노인들 모두에 주의가 요구된다.

모 개발원이 전국 폐지수집 노인 1035명과 폐지 납품고물상 105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도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6.3%인 65명이나 됐다. 또 폐지수집 안전용품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65.4%인 676명이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가 보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후진국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도 많은 현실이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안전문제까지 도외시되는 는 안 될 것이다.

사설

코로나 예방접종,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최근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자가 3월 5만6286명에서 4월 16만 8507명, 5월 44만662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도 이달 초 현재 신규 확진자가 47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150여 명이 사망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역시 4월 중순~5월 초까지 2주 동안 약 2만 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아울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또 당초 4월 말 종료키로 했던 예방접종 기한을 여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각 지역 보건소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올해 22주 차(5월 25~31일) 기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105명으로, 매주 100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사·도민과 이들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맞을 병원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화이자 백신 유통사(HK이노베)가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유료 접종 병원 일고 현황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접종분이 광주·전남지역에 단 3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비가 15만원울 웃돌 정도로 비싸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전화 문의만 할 뿐 접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다.

코로나19는 2023년 8월 홍역, 콜레라 등 발병 시 격리·신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2급 전염병에서 유행 여부에 따라 본격 감시 활동이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우리에게서는 다른 전염병보다 두려운 감염병이다.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고령층 노동시장 주류... 청년층 앞질러

60세 이상 고령층이 광주·전남 노동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은퇴자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광주의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5%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여기서 실업자는 최근 4주간 구직을 위해 활동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해 2분기(47.1%)에 이어 9개월새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2019년 2분기까지 20~30%대를 보이다 3분기부터 40%대를 넘어섰고, 이제는 50%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답보상태다. 관련 통계 시작 당시부터 41.6%였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여년 동안 40% 초반대를 머물며 수직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이지만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었음' 인구 증가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2016년 2분기에는 고령층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월하는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

이 현상은 2022년 2분기(청년층 42.1%, 노령층 42.3%)를 기점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

전남은 더욱 심하다. 통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령층을 넘어선 적이 없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 비율 또한 올해 1분기에는 59.0%로 다소 하락했지만 수년째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올 1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시장도 고령화가 대세가 돼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060 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등록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